

<동정자료>

맹성규 차관 “올림픽 기간 중 기습폭설 등 사전대비 철저” 지시 정시 수송·안전 확보 중요…중앙지원단 구성 및 유관기관 간 협업 당부

-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일(금),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제설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, 강원도·올림픽조직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.
- 이 자리에서 맹 차관은 “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행사 기간 중 개최지를 방문할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시 수송과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.”라며,
 - “도로관리청, 올림픽 조직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기습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줄 것”을 강조했다.
-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올림픽 교통상황 모니터링은 물론 신속한 대응 및 총괄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지원단을 구성하여 올림픽조직위 교통관리센터 내에 설치·운영토록 지시했다.
 - 아울러 현장 작업자들의 피로에 의한 집중력 저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개개인의 건강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도 주문했다.
-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회의를 마치며 “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올림픽 조직위 등 관계 기관이 유기적인 협업 속에 모든 제설 역량을 결집해 올림픽 기간 중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18. 1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